

전남 도서지역 수험생 108명 이동

교통대책 수립…기상악화 대비 해경 합정 대기

2024학년도 수학생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도서지역 수험생 108명이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진행되는 2024학년도 수능에 전남 여수와 완도·진도·신안 도서지역 학생 108명이 도전한다.

도교육청은 도서지역 학생들이 원활하게 예비 소집일인 15일 시험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박 교통비를 지급한다.

수험생들이 시험 배정 학교 인근에 머문 뒤 고사장에 제시간에 도

착할 수 있도록 숙박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능 예비 소집일에 해상 기상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여수와 목포·완도해양경찰서 경비합정을 이용해 수험생을 시험장소로 이송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지역 학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각종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 숙소에 머물며 공부할 책 등을 챙겨 선박을 이용해 이동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

서구-청년기업, 통합돌봄 지원 맞춘

상생·협력 24시 안심출동서비스 지원



서구는 14일 통합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년기업 ㈜이레컴퍼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이레컴퍼니는 창업진흥원 주관 ‘20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예비 창업자 공모사업’인 ‘위치기 반서비스를 활용한 병원동행서비스’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레컴퍼니는 24시간 운

영되는 돌봄콜(350~4000)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해 대상자의 심부름, 병원·외출동행, 형광등 교체, 간단한 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24시 안심출동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레컴퍼니는 요양보호사 30여 명을 확보해 서구에서 추진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주 기자

북구, 김장 나눔으로 구민 통합 이룬다

내달 10일까지 28개 동, 유관 기관·단체 등 참여

돌봄이웃 겨울나기 위해 3만여 포기 김장 나눔 행사

북구의 늦가을이 돌봄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열동 준비로 분주하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유관 기관·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28개 동 자생단체에서는 1만2000여 포기의 김장을 담급 예정이며, 북구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유관 기관·단체에서 계획한 수량을 더하면 3만 포기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간 업체와 단체의 후원도 잇따르고 있어 북구의 겨울을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그간 안부와 애로사항도 들어 필요시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매년 겨울맞이 준비를 위해 김장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김장김치 나눔이 이웃사랑과 훈훈함으로 가득 찬 북구 겨울나기의 밑거름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성공, 시민과 함께”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13일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열린 ‘광주송정역세권 발전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박병규 청장은 이날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청년으로부터 광주송정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범

시민운동본부가 주축이 돼 추진한 서명운동에는 이날까지 5386명이 참여했다.

박병규 청장은 “시민 의견을 경청하며 금호타이어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방안을 찾는데 광산구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기 기자

북구시설공단 폐기물 업무위탁 앞두고 잡음

노조 “공단 이관 앞서 충원·체불부터 해결해야”…북구 “개선 노력할 것”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생활·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 인수를 앞두고 기존 민간 위탁업체 내에서 잡음이 나왔다.

해당 업체 노동자들은 적정 인력 충원, 임금 체불 등 부조리가 공단 업무 이관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는 14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민간업체 내 노동 현실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당 업체는 1986년부터 36년 간 구청으로부터 북구 내 19만 8757가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독점 위탁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북구 출자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위탁 형태로

해당 업무를 도맡는다.

노조는 공단 이관에 앞서 적정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북구가 광산구보다 인구·세대가 더 많지만 정규직은 더 적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 강도는 다른 자치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 업무 이관 관련 협의에서 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며 “구청은 직원들의 연가 병가시 업무 대체 인력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일부분만 승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간업체 내 상승·계획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새벽에 여는 시장 주변 폐기물 수집 업무를 1~2시간 일찍 시작하는데도 야간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 외 개인 차량 세차 등 사적 업무도 강요했다”면서 “사적 업무 동원으로 3인 1조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2명이 맡아야 했다. 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자·산업재해도 늘었다”라고 했다.

이 밖에 과거 차고지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씻은 오염수를 농수로에 버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구청이 현안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 공단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체불 임금을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기존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연가·병가를 자

유롭게 신청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 개선 차원에서 대체 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미지급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원칙적으로 청산한 이후 공단이 업무를 넘겨받을 것이다. 임금 미지급 조끼 근무 등은 구청이 업무 지시한 내용이 아니다.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업체 측도 해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노동자들이 제기한 사적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대행 업무 외적인 부분에 기본적으로는 사내 문제다. 다만 공단 이관 이후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명문화, 추진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차 과정에서의 오염수 농수로 무단 배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뉴스이

전남 ‘대설·한파’ 선제적 대응…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인명피해 제로 대응계획 점검·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전남도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에 12억여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겨울철 자연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제로 달성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남도-유관기관 간 대응계획을 점검을 위한 협업 간담회를 전남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엔 전남도 13개 협업부서와 전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

전력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 기관들은 재해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폭설 시 고속도로 제설 활동, 한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 전남경찰청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교통관리 계획수립 등 유관기관별 겨울철 재난 대비 계획에 대해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했다. 전남도는 올해 대설·한파에 대비해 도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김 호 기자

‘판정불가’ 영광 림피스킨 의심신고, 최종 음성확인

예방백신 접종 후 ‘경미한 접종반응’으로 재검사 결론

영광 한우농장에서 전남지역 세 번째 림피스킨 의심가축이 발생해 판정 불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실시한 재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군 흥농읍 한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림피스킨 의심 증상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 음성으로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림피스킨 백신이 약독화 생백신으로 영광 의심 신고 건은

접종 이후 나타난 의심 증상이라는 점에서 ‘경미한 접종반응’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검사 결과 판정 불가 결정을 하고 살처분을 보류했다. 이 한우농장에선 지난 12일 오전 일부 한우에서 피부 결절이 확인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2마리를 살처분 할 예정이었으나 판정 불가

가 나오자 살처분을 보류했다.

이 한우농장에서는 지난 1일까지 림피스킨 예방 백신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였다.

림피스킨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 후 접종 부위 근처에 0.5~2cm의 작은 결절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은 접종 2~3주 후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림피스킨 백신 접종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절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재검사를 실시했다. 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제한과 소독·임상 예찰을 진행했다.

/김 호 기자

광주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빛고을농업대학’ 자율성지역량 강화 등 높은 평가

제16기 과정 성료…40명 예비 전문농업인 배출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농촌진흥청의 ‘전국 농업인대학 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운영기관 평가는 전국농업인대학을 대상으로 1년의 교육운영 내용과 수료율·만족도 등을 반영했

다. 광주농업기술센터 빛고을농업대학은 농업인 사전 요구분석에 따른 교과 편성, 소모임체 학습 등 농업인의 자율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운영의 독창성, 내부강사 활용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08년

부터 운영을 시작한 빛고을농업대학은 그동안 1030명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등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제16기 빛고을농업대학 졸업식을 갖고 40명의 예비 전문농업경영인을 배출했다.

제16기 빛고을농업대학은 지난 2월 입학식을 열고 ‘지역의 특화 및 신소득작목 육성’을 주제로 ▲스마트 시설원에기술교육 ▲아열대과수 탐구교육 ▲새로운 소득판로 설계 경영교육의 전문교과 ▲양성평등 ▲농작업 안전 ▲기후위기 등 총 31회 100시간을 운영했다.

특히 소모임체를 운영해 토론식 학습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안배하고, 참여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형성해 교육생의 자율성장 역량을 강화했다.

/조일상 기자

전남도교육청

전남국제직업고 신설 ‘박차’

전남도교육청이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 이하 전남국제직업고)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3일 전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남국제직업고 신설 추진협의회를 갖고 해외 유학생 유치·교육·취업·정주를 위한 전남형 모델 개발을 논의했다.

세계 각국에서 전남으로 ‘찾아오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국제직업고는 다문화·중도입국 학생 및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학교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국제직업고 신설을 △(단기)기존 특성화고에 해외 유학생 유치(25년 3월) △(중기)기존 학교를 해외 유학생 특화학교로 전환(26년 3월) △(장기) 전남국제직업고 신설(28년 3월)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 수능 이후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 방안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와 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마련해 지난 13일 안내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 계획은 자기 주도적 진로역량을 함양하고 학사운영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수능 당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생활지도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한다.

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학년말 ▲학교급·학년별 상황에 맞는 학사운영 계획 수립 ▲학생 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 ▲고3학생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진로 연계 체험 및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생활교육 집중 특별기간’ 운영을 통3학년 교내·외 학생 생활지도 강화 등에 대한 방침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1,2학년과 3학년의 학사일정을 이원화하고 고3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진로·진학과 경제·금융 교육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각 학교와 함께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에도 힘을 예정이다.

학교 밖 생활안전전을 위한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비행 및 탈선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